

돌아갈 집 없는 70만 로HING야족

미안마, 건물 불태우고 벌목 난민 안전·시민권 보장 안돼 자국 송환 무기한 연기 상태

반군 토벌을 빌미로 로HING야족 민간인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는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안마가 로HING야족의 흔적까지 말끔하게 지웠다고 AF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최근 미안마 주재 외교단의 분쟁지역 방문에 동참했던 크리스티안 슈미트 유럽연합 대사는 애초 로HING야족이 거주하던 마을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개했다.

사진 속 로HING야족 마을은 이제 사람이 살던 곳으로 볼 수 없을 정도다.

미안마 당국이 중장비를 이용해 불에 탄 건물의 잔해를 완전히 철거하고 마을 인근에 있던 수목도 깨끗하게 밀어버린 것이다.

농토로 둘러싸인 마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불에 탄 뒤 남은 희뿌연 재뿐이다.

로HING야족 인권단체인 아라칸 프로젝트의 크리스 레와 대표는 "로HING야족들이 파괴된 마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우기에 비가 내리면 로HING야족의 삶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HING야족은 그들(미안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흔적을 쓸어버리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난민 송환 책임자인 민 미얏 아예 사회복지부 장관은 "(로HING야족) 마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그들이 돌아오면 원래 거주지나 원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다"고 해명



12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인근에 있는 로HING야족 난민촌에서 한 여성이 구호 식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왼쪽)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철거된 로HING야족 마을. /연합뉴스



했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안마 사회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HING야족은 국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차별과 박해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8월 로HING야족 반군단체인 아라칸 로HING야 구원군(ARSA)이 동족을 보호하겠다고 대미안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 30여 곳을 습격하자 미안마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소탕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70만명에 육박하는 로HING야족 난민이 유혈사태를 피해 국경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또 국경없는의사회는 유혈사태 한 달 만에 67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했다.

또 난민들은 미안마군이 성폭행과 방화, 고문을 일삼으면서 로HING야족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려 했다고 주장했고, 국제사회는 이런 미안마군의 행위를 '인종청소'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미안마는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국제사회가 구성된 조사단의 활동도 불허했다.

미안마와 방글라데시는 지난해 연말 로HING야족 난민을 2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끔찍한 박해를 경험한 난민들은 신변 안전과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이로 인해 난민 송환 개시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미안마 정부 고위관리가 난민들에게 본국 송환을 강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안마 내무부의 아웅 소에 차관은 최근 국경지대에 있는 황무지에 머무는 6000여 명의 로HING야족 난민들에게 즉각 난민촌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아베 자위대 개헌안, 일본인 27%만 지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 관련 규정을 추가하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안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이 후지TV 계열 후지뉴스 네트워크(FNN)와 함께 10~11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27.5%만이 일본 헌법 9조의 2항(전력 보유 불가)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근거를 다룬 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 개헌 제안에 동의했다.

아베 총리와 여당 자민당은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헌법을 고쳐 개헌의 물꼬를 트 뒤, 9조의 1항과 2항을 수정하는 '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제안이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의 근거를 명기하면

서 동시에 9조의 2항을 삭제하자는 더 급진적인 의견을 택한 응답자는 28.8%나 됐다.

2조를 유지하든 삭제하든 어떤 식으로든 9조를 수정하자는 답변은 56.3%나 된 것이다. 반면 "9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0.6%였다. 한편, 응답자의 66.4%는 한국을 "외교와 경제활동의 대상국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3%에 그쳤다.

응답자의 76.9%는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확실한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83.8%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0%로 지난해 20~21일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38.8%로 제1야당 입헌민주당(15.6%)에 크게 앞섰다. /연합뉴스

'美 법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친부 선처



성폭력 피해 자매의 아버지가 분노해 법정서 피고인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체조대표팀 전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의 간악한 성폭력에 유린당한 딸들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분출한 분노에 대해 법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튼 카운티 검찰청의 더글러스 로이드 공판감사는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구금된 래리 나사르에게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마그레브는 체조선수 세 딸을 둔 아버지다. 마그레브의 딸들은 미시간주립 대학교 미 체조대표팀 주치의로 있던 나사르에게서 지속해서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지난 2일 미시간주 살렛의 이튼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나사르에 대한 공판에서 마그레브는 딸들의 증언을 듣고 있었다.

딸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데 피고인식의 나사르가 사실을 부인하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마그레브

이브스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판사에게 "나사르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저 악마와 잠겨진 방 안에 5분만 같이 있게 해달라. 아니 내게 1분만 달라"고 요청했다. 제니스 커닝엄 판사가 '사적 복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자, 마그레브는 갑자기 뛰어들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나사르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 수감기 채워진 채로 구금됐다.

로이드 검사는 "기소 재량권을 검토한 결과 마그레브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정 폭력의 피해자인 나사르의 두 변호인도 성폭력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법정 폭력에 대해 원래 처벌이 엄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미 언론은 해석했다. /연합뉴스

중 스텔스 무인기 '헨잉' 시험비행 성공 언론 보도

중국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중국 인민망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항공과공급단(CASIC)이 주도한 스텔스 무인기 '헨잉'이 개발에 착수한 지 4년만에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스텔스 무인기 수석 설계사인 마홍중은 이번 무인기에 적용된 기술의 80%가 새로운 것으로 가장 첨단기술이 적용됐으며 일부는 세계 무인기산업에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회사측은 새로운 무인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시험비행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시험비행에 사용된 기술은 지상에서 많은 시험을 거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 국회에 국방예산 743조원 요구

임시 예산안보다 10%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등 국방예산의 대폭 증강을 요구했다.

전체 국가안보 예산 7160억 달러(약 776조원·재량지출 기준)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6861억 달러(약 743조원)로, 이는 2018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6118억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핵 역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 미사일 방어 예산에 129억 달러를 각각 요청했다. 미사일 방어 예산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는데 소요되는 성격을 띤다.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 중 99억 달러는 ▲이중 요격체계 43기(17억 달러)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요격체계 47기 및 사일로(발사시설) 10대(21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요격체계 82기 및 PAC 개량형 미사일 요격체계 240기(1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 포트 그릴 리지 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발사장 건설 및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20기 조달 비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GBI는 현행 44기에서 64기로 늘어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

했다. 이는 알래스카 포트 그릴 리지에 배치되며, 추가 배치 작업은 2023년 마무리 예정이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에서 미사일 방어 예산과 관련, "미국과 동맹 등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 미사일에 도 맞설 수 있는 미국의 탐지·격퇴·방어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이 나라의 핵 운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예산 증강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에 국방력 우위가 잡식되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차원으로 걸렸다고 더 힐은 풀이했다. /연합뉴스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H.010-3605-5000